

磨門

불기 2559년
겨울호
통권 제135호
雲門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㉙ 한 해의 마무리이자 다음 해의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正心으로 정진 여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금 다졌으면 합니다. / 사교과 덕인
- ㉚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위없는 행복을 누리기를,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 사집과 영운
- ㉛ 설익은 감을 항아리에 넣는 운력을 했습니다. 그 감들이 익어 맛있는 홍시가 되어 가듯이 이 겨울 우리들의 수행도 밝고 투명하게 무르익어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집과 청원
- ㉜ 겨울바람이 알싸합니다. 얼마 전엔 첫눈도 내렸지요. 운문사에서의 지금 이 순간이 참 소중합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 사집과 유연
- ㉝ 날마다 새로운 발심으로 삽시다. / 사집과 휴정
- ㉞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의 흐름을 살피고 함께 있을 때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펴라. / 사미니과 성훈
- ㉟ 오백전 백일기도가 끝났습니다. 치문반 스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100일간 기도해주신 오백전 부전스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사미니과 윤덕
- ㉟ 예비 사집반 도반 스님들, 찬 겨울바람 따라 막내 허물 벗어버리고 위의 있는 상반이 되어보아요. 근녕하셨습니다. / 사미니과 동호

雲門

목차

- | | | |
|----|----------------|--|
| 02 | 호가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 죽림현 | 수행자의 일상 평성 |
| 06 | 교수논단 | 일연 선사와 운문사 ③ 평성 |
| 10 | 깨달음으로 가는 길 | 기도의 요건 편집부 |
| 12 | 자유기고 | 수행, 길을 찾다 문장 |
| 14 | 想 | 發心卽佛 원결 |
| 16 | 특별기고 | 南無 僧行佛 혜정거사 |
| 18 | 차례법문 | "100점" 볍여 |
| 20 |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途年과 迎年 사이에서 지성 |
| 22 | 학인논단 | 불교문화콘텐츠파크 '인드라월드(IndraWorld)' 를
제안하며 ② 혜도, 선우, 무이 |
| 27 | 풍경소리 |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편집부 |
| 28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부처님의 씨앗 도원 |
| 30 | 수행의 두레박 둘 | 쩌렁쩌렁 금강경 시우 |
| 32 | 수행의 두레박 셋 | 버팀목 소윤 |
| 34 | 운문수상 | 회주스님! 치분반 일동 |
| 36 | 탐방 | 숨은 선지식을 찾아서 편집부 |
| 40 | 끌없는 여성 | 거짓 없는 표현 아도 |
| 43 | 담소 | 스크린 중독 편집부 |
| 44 | 운문, 운문인 | 오백나한님과 함께했던 100일 수행 편집부 |
| 46 | 이 한 권의 책 | 인생에서 돈과 쾌락보다 소중한 것들 평과 |
| 48 | 운문논평 | 법담을 나누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주성 |
| 50 | 운문소식 | |
| 51 | 등불 | 나를 바라보는 시간 편집부 |



수행자의 일상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원장



대중스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겨울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겨울산천의 초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름철 그 무수한 잎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양상한 가지만으로 나무들은 춥고 긴 겨울을 지내게 되겠지요. 오늘은 겨울의 산천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의 일상과 부처님 당시 제자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금강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처님의 일상은 맨발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며 공양을 하시고 자리를 빼고 앉아 선정에 드신 후 설법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의 하루생활은 어떠한 특별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명하게 깨어 있는 매 순간이 수행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또 수행자들의 철저하고 검소함을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아난 존자는 우전왕으로부터 오백 벌의 가사를 보시 받게 됩니다. 그때 우전왕은 아난 존자에게 궁금한 점 한 가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아난 존자시여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청정한 생활을 하는 욕심 없는 수행자로서 오백 벌이나 되는 가사를 모두 수용하니, 다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대왕이시여 이것은 내가 다 입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수백의 부처님 제자 중 떨어진 가사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까닭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입고 있던 떨어진 가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은 잘 세탁하여 깔고 덮는 훌이불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떨어진 훌이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베개 침을 만듭니다.”

“그러면 묵은 베개 침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깔고 앉는 방석을 만듭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방석은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는 세탁보를 만듭니다.”

“그러면 못 쓰게 되는 세탁보는 어찌합니까?”

“마루와 방을 닦는 걸레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떨어진 걸레는 어떻게 합니까?”

“잘게 썰어서 진흙과 쑤어 가옥을 수리할 때 벽을 바르는 데 사용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위에서 보여주는 부처님의 일상과 부처님 제자들의 검소한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今生에 未明心하면 滴水도 也難消니라.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방울 물도 또한 녹이기 어렵다는 말은 잘 알고 있겠지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소유의 생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요즘 물질이 풍족하고 스님들에 대한 예우가 용성하여 혹시 본분사를 떠나버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특별한 대접이나 좋은 물건들에 현혹되어 복을 감하고 업을 두텁게 하면서 수행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잘 관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평상심이 道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오늘을 떠나서 지금 여기를 떠나서 수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우를 들고 맨발로 인도의 어느 거리에서 오늘도 결식을 하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항상 마음에 새긴다면, 저 겨울나무의 모습 속에서도 늘 우리의 자성을 일깨우는 법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일연 선사와 운문사 ③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원장

목 차

1. 서언
2. 운문사의 창건과 내역
3. 일연 스님의 생애와 성품
- 4. 일연 스님의 저작과 삼국유사**
5. 일연 스님과 운문사
6. 결어

4. 일연 스님의 저작과 삼국유사

일연 스님은 선사이면서 교학에도 많은 연구를 하셨던 분임을 스님의 생애와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일연비명—然碑銘」에 스님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것이 8종 100여권에 이른다.

스님이 직접 지은 것은 『여록』 2권과 『제송집저』 3권이 있고, 편수한 것은 『조동오위』 2권 『조파

도』 2권 『대장수지록』 3권 『제승법수』 7권 『조정사원』 30권 『선문염송사원』²⁸⁾ 30권 등이 있다.²⁹⁾ 이를 저작들 가운데 현전하고 있는 것은 『중편조동오위』 2권뿐이다.³⁰⁾ 『중편조동오위』는 스님이 남해로 옮겨 수선사와 관계를 맺게 된 이후 1256년부터 『중편조동오위』의 보충에 착수하여 1260년에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스님의 저작으로 널리 알려진 『삼국유사』는 비문에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 까닭을 비문을 쓴 민지가 『삼국유사』를 ‘한갓 심심풀이의 글장난으로 보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본 견해도 있으나 비문에서 밝히고 있는 스님의 100여 권의 저작 중 그 서명을 밝히지 않은 20여 권 중에 『삼국유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을 것 같다. 또한 현전하고 있는 『삼국유사』 권5의 첫머리에 ‘국존조계종가지산하인각사주지원경충조대선사일연찬國尊曹溪宗伽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沖照大禪師一然撰’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스님의 저작임이 분명하다.

『삼국유사』는 5권으로 되어 있고 9편의 사유로 나뉘어져 있다. 제1편에는 「왕력제일」과 「기이제일」이 들어 있고 제2편에는 편목이 따로 없이 「기이제일」과 같은 성격의 사유가 계속 수록되어 있다. 제3편에는 「홍법제삼」과 「탑상제사」가 들어 있고 제4편에는 「의해제오」가 있으며 제5편에는 「신주제육」 「감통제칠」 「피온제팔」 「효선제구」 등이 실려 있다. 이러한 구성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의 王력편王歷篇은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 그리고 후고구려(태봉) 후백제 등 다시 말해서 신라의 초두에서부터 후삼국의 고려 태조의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왕대와 연표를 도표식으로 정연하게 보이고 있으며, 그 위쪽과 말미부분에 중국의 역대 왕조와 연호를 표하여 시대적인 준거가 되게 하고 있다.

第2의 기이편紀異編에서는 卷1 「고조선」「위만조선」 등 단군조선의 상고대로부터 「태종춘추공」「장춘랑 파랑」 등 신라통일 이전인 태종 무열왕

대에 이르기까지의 요사를 모은 36항목과 卷2에 「문호왕 법민」에서 「가락국기」 등 통일 이후 국망까지의 신라를 중심으로 하여 백제와 후백제 및 가락 등에 대한 것을 수록한 23項目이 있다. 결국 기이전편에는 모두 59항목이 있는 셈이다.

第3의 흥법편興法篇에는 「순도조려」를 비롯하여 삼국의 불법전래 및 흥법의 사실을 주로 한 6항목이 들어 있다.

第4의 탑상편塔像篇에는 「동경홍륜사, 금당십성」을 비롯하여 「오대산문수사석탑기」에 이르기까지 주로 신라의 탑상을 중심으로 한 31항목을 수록하였다.

第5의 의해편義解篇에는 「원왕서학」을 비롯하여 신라의 고승들에 대한 전기가 중심이 된 14항목이 모아져 있다.

第6의 신주편神呪篇에는 「밀본최사」 등 신라의 밀교적 신이승들에 관한 3항목이 수록되어 있으며,

第7의 감통편感通篇에는 「선도산 성모 수희불사」 등 신라의 영이감옹에 관한 10항목을 수록하였다.

第8의 피운편避隱篇에는 「낭지승운보현수」를 비롯하여 주로 은일고사隱逸高士의 행적을 10항목으로 모아 놓았으며, 끝으로 第9의 효선편孝善篇에서는 「진정사 효선쌍미」 등 효행 미담 5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9篇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국유사는 연표인 왕력을 제외하면 도합 138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는 시대별주가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이르기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

제 그 찬술의 중심은 삼국 중에서도 신라로 되어 있다. 특히 삼국유사의 전체적 구성에서 주목되는 것은, 9篇目 중 처음의 왕력편이 연표이므로 그 실제 내용은 8편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기이편을 제외한 7편 모두가 불교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신라를 중심으로 한 초기의 한국불교문화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 스님의 관심은 불교미술, 불교민속, 불교의 사회적 문제, 불교적 신앙과 생활 등 불교 전반에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특히 스님의 관심은 불교의 차원 높은 사상이나 교리, 고승대덕에 대한 것보다는 서민적이며 대중적 측면 그리고 불교의 사회적·생활적 측면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

『삼국사기』가 왕조국가 중심의 서술이라면 『삼국유사』는 서민과 서민생활 중심의 서술이라 하겠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불교사, 고승전, 불교설화, 탑상, 사찰의 연기, 불교미술, 불교민속, 기타 불교의 사회적 가정적 문제에까지 깊은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선승 외에 불교학자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군신화를 정점으로 하여 고대사의 자주적 파악과 강렬한 민족의식 및 주체성에 입각하여 민족사를 확립하고 체계화하고 있는 점에서 국사학자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시까지 구전되던 각종 구비전승, 신앙전승 등 재래의 전통 문화적 유산을 폭넓게 정리하고 있는 점에서 민족학적 차각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일연 스님은 선사이면서 불교학자요, 국

28) 「선문염송」 : 진각해심이 49세 때에 선문염송 30권을 편술하였는데 이 책은 선림의 공안 1125종과 제조사의 염송 등 요어를 수록한 불서로서 송광사에서 이룩한 것이다. 일연은 이 책을 만나 수선사와 사상교류를 갖게 되며 「선문염송사원」 30권을 편수하게 되었다.

29) 「一然碑銘」 p.19

30) 「조동오위」는 동산양개(807~869)가 제창한 편정오위로서 즉 정중편, 편중정, 정중래, 편중지, 겸중도이다. 조동종의 핵심적 저술로 조동선맥을 이은 수미산파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된 것이다. 高麗後期의 禪思想研究 p.152 權奇徐著

사학자이며 민속학자로서 일찍이 육당 최남선이 헤로도토스를 서방역사의 아버지라 한 것과 같이 일연 선사는 우리 민족사의 아버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 일연 스님과 운문사

일연 스님과 운문사와의 직접적인 인연은 충렬왕 3년 (A.D. 1277)에 왕명에 의해 스님이 운문사에 주석하면서부터이다. 이어 충렬왕 8년 (A.D. 1282) 왕이 다시 스님을 초청하여 개경의 광명사에 주석 케 할 때까지 4년여 간 운문사에 계셨다. 이 동안 스님은 남해 정림사에 계실 때부터 30여년 동안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 오던 『삼국유사』를 완성하였다.³¹⁾

스님과 운문사와의 관계는 위의 기록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왕이 직접 명하여 스님을 운문사에 주석케 한 점은 소홀히 넘길 부분이 아니다. 운문사는 고려 왕건 태조가 '운문선사'로 사액한 사찰로 고려 왕실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선찰이었다. 그러나 무신정권하에서는 그들의 비호를 받은 수선사와 백련사가 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안 다소의 침체기가 있었으나 원나라 지배기에는 수선사를 계승한 일연 스님의 가지산문을 중심세력으로 하여 불교계를 이끌었다. 운문사에서 왕명으로 上京한 스님은 국존에

책봉³²⁾되고 원경충조라는 법호를 받았다. 스님을 국사로 책봉하기 전 충렬왕은 군신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 선왕이 다 석문에 데이 큰 자를 얹어서 왕사를 삼았고 데이 또 큰 자를 국사로 삼았으니 부덕한 내가 홀로 왕사 국사됨은 옳지 않도다. 이제 운문 화상은 도가 높고 데이 성하여 사람들이 우러르는 바이니 어찌 마땅히 과인만이 홀로 자택을 입지 않으리오……"³³⁾라고 하면서 스님을 운문 화상이라고 일컬으며 운문사와의 깊은 인연을 나타내고 있다.

또 스님께서 입적하신 후 스님의 행장을 친하여 운문사 동쪽에 행적비를 세운 이가 바로 스님의 문인인 운문사 주지 대선사 법진(청분)이며 이로 인하여 충렬왕이 민지에게 비명을 짓게 하니 오늘날 인각사에 전하는 「보각국존비명」이다. 이로 볼 때 스님의 생존 당시 스님과 운문사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운문사는 제3차 중창주인 학일원옹 국사에 의해서 선종 구산문 중의 하나인 가지산문이 호남에서 영남지역으로 중심이 넘어오면서 그 중심사찰이 되었다. 원옹 국사(A.D. 1052~1144)는 인종 원년 (A.D. 1123)에 왕사로 책봉되어 가지산문이 당시 불교계의 중심이 되도록 한 분이다.³⁴⁾ 현재 국사의 비가 운문사에 남아 있어 당시의 정황을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다. 인종 7년(A.D. 1129) 국사가 은퇴하여 운문사에 주석해 있자 많은 승려 학자들이 운집하여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가지산문의

31)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탈고 완성하신 곳은 운문사와 인각사 두 곳으로 논란이 있다. 최남선, 권상노, 황파강 등의 학자는 『삼국유사』의 탈고 완성한 곳을 운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32) 국사를 국존이라고 한 것은 대조(元)의 제도인 국사를 피하기 위함이다. 「改國師爲國尊者，爲避大朝國師之號也」 一然碑銘 p.10

33) 「上謂群臣曰 我先王 皆得釋門德大者爲王師，德又大者 爲國師在否德獨無可乎。今雲門和尚道尊德盛人所共仰 豈宜寡人獨蒙慈罩當與一國共之」 一然碑銘 p.9

34) 원옹 국사는 보안사람으로 자는 봉거, 서원, 명은 학일이었다. 13세에 구족계를 받고 향수전회에게서 선지를 깨닫고 경, 물, 논 삼장을 연구하여 특히 대반야경에 능통하였다. 예종 때에 삼종대사, 선사, 대선사가 되었고 인종 때에 왕사가 되었다. 운문사에서 입적하시니 세수 93세요 법랑이 82세였다. 시호가 원옹으로 국사로 추증되었다. 雲門寺 圓庵國師碑

중심지가 경상도로 변동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연 스님은 14세 때에 가지산문의 주요사찰인 설악산 진전사에서 대웅 장로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후에 스님은 가지산문의 중심인물이 되었으며 자연히 가지산문의 중심사찰인 운문사에 주석하게 되었고 ‘운문 화상’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의 문인인 진정 대선사 법진(청분)이 운문사 주지로 있으면서 인각사에서 입적한 스님의 행적비를 운문사에 세운 것이다.

또한 스님이 찬한 『삼국유사』 여러 곳에서 운문사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스님의 운문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인연을 엿볼 수가 있다. 오늘날 운문사가 비구니 전문 승가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선교에 대한 해박한 소양을 겸비한 스님과의 인연이 무관치 않다고 여긴다.

6. 결 어

일연 스님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사 이면서도 교학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으신 분이었다. 고려 후기에 무신집권기의 대동항쟁기와 이후의 원지배기의 혼란한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신 분이다,

스님은 운문사 제3차 중창주인 원옹 국사의 뒤를 이어 가지산문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분이다. 또한 스님은 운문사에 주석하면서 운문 화상이라고도 불렸으며, 운문사에서 『삼국유사』를 편찬하여 불교학자요 국사학자요 민속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이신 분이다.

그런데 스님께서 입적하신 인각사가 퇴락하여 옛 모습을 찾을 길 없고 스님의 신도비神道碑마저 수차례의 병화로 파손되었다. 더욱이古今을 통하여 과거 응시자들이 비석의 글자를 깨아 내어 갈아 마시면 스님의 신력으로 반드시 급제한다는 미신 때문에 훼손되어 거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국사의 협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영원히 잊을 수 없거늘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국민의 한 사람, 아니 불자의 한 사람으로 파손된 비석을 볼 때마다 통탄을 금치 못한다. 또한 스님의 부도인 정조탑이 명당자리를 탐낸 일부 허황된 자들에 의하여 훼손된 채로 방치되었던 것을 근년에야 인각사 경내로 옮겨 놓은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다.

필자는 일연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운문사에 몸 담아 살면서 선교일치에 입각하여 수많은 저서와 업적을 남기신 스님을 경모하며 자부심과 궁지를 가지고 평소의 수행에 좌표로 삼고 있다. 이제 일연 스님과 운문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조속한 시 일내에 인각사의 복원과 碑石의 원상 복구를 바라 마지 않는다. ■

〈参考文献〉

- 三國遺事와 僧 一然과의 關係考索
李楠永, 第一回全國佛敎學術發表大會
- 三國遺事의 體裁와 그 性格
金英泰, 東國大學校論文集 第十三輯
- 一然의 悲願
閔泳珪, 第七回國際佛敎學術會議
- 三國遺事와 佛敎儀禮
洪開植, 佛敎學報 第十六輯
- 一然의 重篇曹洞五位
權奇悰, 高麗後期의 禪思想研究中
- 一然(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中)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所編
- 三國遺事解題
崔南善編, 新證 三國遺事 三中堂 1946
- 普覺 國尊 一然에 대한 研究
蔡尚植, 韓國史研究 26, 1979
- 麟角寺誌
蔣濟明, 編纂委員會
- 麟代의 雲門寺와 密陽, 清道 地方
金潤坤,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3
- 一然論
印體煥, 韓國文學作家論, 瑞雲出版社, 1977



넓은
길에서

기도의 요건

편집부

기도란,

나와 남의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기도한다면, 본인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작은 암자에 노스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절에는, 산 밑의 작은 밭에 콩 농사를 지어서

순두부를 만들어 공양 올리는 보살이 있었고,

또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다가 도토리묵을 쑤어서 공양 올리는 보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비가 불었습니다.

순두부 만드는 보살은 관세음보살이 맞다고 하고

도토리묵 쑤는 보살은 관세음보살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순두부 대장경에는 관세음보살이라 돼 있고,

도토리묵 경에는 관세음보살이라 돼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노스님의 지혜로

더욱 신심이 나는 절로 번창했다고 합니다.

- 지오 스님 법문 중에서 -

수행, 길을 찾다 – 운문의 후배들에게

문강 / 대교과

찬 공기를 가르며 도량석의 목탁소리가 울리면, 하나 둘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새벽예불을 모시려 대웅전으로 향합니다. 가는 도중 하늘을 보니, 멀리 북대암 위에서 북극성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론 겨울 새벽, 어두운 사위를 밝혀주는 별빛의 따뜻함에 조금은 추위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끝과 또 다른 시작의 경계 속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운문사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이맘때가 되면 운문사를 떠날 이, 그리고 운문사를 향해 출발하는 이. 이렇게 각기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도량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 되었네요.

꽤 긴 시간 전에 저는 운문사 입방을 앞두고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른손으로 하는 젓가락질 때문이었는데요, 태생이 원손잡이인 저는 글씨를 쓸 때에만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보통 오른손으로 공양하는 대중스님들처럼, 발우공양 때 꼭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사용해야겠다는 일념 하에 저는 밤이 되면 온 사스님 몰래 전등을 켜놓고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들고 콩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콩을 집는 것도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콩을 옮기게 되었고, 그 노력 하에 지금은 어느 정도 오른손으로 공양하는 데 어색함이 없습니다.

이렇듯 고정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그 습관도 새로운 생활을 위해 바꾸고자 하면 가능하다는 걸 몸소 체험한 후, 저는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운문사에서의 하루하루는 실수의 반복, 그리고 그로 인한 자책의 연속이었지만, 앞서 경험한 변화의 체득으로 인해 저는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중생활을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중이 참 좋은 것은 여러 경계에서 ‘나’의 생생한 민낯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마주 할 마음을 갖는 것은 크나큰 용기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알게 되었습니다.

병이 생긴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느꼈던 절망감, 쉬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어 가는 상황들에 무력해지고, 결국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지’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설사 이유를 알 수 없는 순간들에 무너져도, 그것들을 수용하고 견디고 나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온다고. 그래서 지금은 잃은 것만큼 얻은 것도 많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얼마 전 반 스님들과 선지식 한 분을 친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눈 밝은 선지식이라고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 처소에 도착하니, 큰스님께서 멀리서 온 학인들을 위해 짜



장면을 해주신다고 하기에 당연히 시자스님이나 공양주보살님이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한참 동안 천진한 미소로 저희들의 물음에 답을 해주시던 큰스님은 사시공양 준비시간이 되어, 노구를 이끌고 후원으로 가셔서 친히 짜장을 볶으셨고, 결의 원주스님은 면을 삶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편안히 앉아 있으라는 말씀에 제대로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저희들 앞에 김이 풀풀 나는 뜨거운 짜장면이 한 그릇씩 놓여졌습니다. 큰스님이 해주신 짜장면은 도와드리지 못해 안절부절못하던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이 녹이고 남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과식할 정도의 최고의 맛이었다’라는 환호에 큰스님은 미소로 답을 주셨습니다.

운문사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시간을 이기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일과 속에서 ‘나’는 시간 속에 갇혀, 답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만큼 부처님 말씀은 저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공양 후 이어진 소참 법문에 큰스님께서는 ‘수행자가 순간순간을 철저하게 내 것으로 하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으면 순간순간 패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의문이 비로소 풀렸습니다.

시간을 이기는 것은 시간에서 ‘나’가 완전한 주인공이 되는 것. 지금 이 순간 ‘나’는 조금 전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인데, 전 이제까지 저 자신을 찰나찰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라고만 여겼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에서 배우고 조사스님들의 어록에서 배웠어도 그 날 체감하게 된 것은 아마도 시절인연이었겠지요.

애를 쓰고 또 애를 써 눈뜬 자가 되라며 격려해주시는 큰스님. 일생 수행에만 매진하여 한 경지를 이루신 분의 담담한 말씀 속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격의 없이 저희들을 대해주시는 큰스님의 넉넉하신 마음과 그 마음을 아직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크기가 느껴졌습니다. 건강하시라는 인사를 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후, 후학을 염려하는 어른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짜장면 공양 값을 치러야겠다는 생각에 비로전에서 참회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가 원력을 품고, 평생 여일한 수행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북극성은 예전부터 길잡이 별이라고 합니다. 그 별자리만 찾으면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법을 보고 출가한 사람들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바늘이 흔들린다고 여겨질 때 오직 부처님의 법만을 길잡이로 삼아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매순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發心卽佛

마음을 열면
붓다꽃



南無僧法佛

慧定 / 카페「운문사 사리암」운영자



글자의 順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소견이 ‘불법승’이란 단어는 존재의 연유를 우선하여 존엄의 순으로 나열한 견해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현실적인 신행에 있어서는 승가가 있어야 법을 배울 수 있고, 배운 법을 실천하여 불교에 계합하므로 돌아가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신행 정진방면으로 僧法佛이란 순을 생각하게 된다.

혹 유명한 학자나 인터넷 강의, 책 등에서 불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학생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으로 분류하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수행을 하신 스님께서 전하는 불법이라고는 정의하고 싶지 않다. 불교의 三寶 가운데 불보와 법보는 定數지만 승보만은 變數다. 결국 불교가 융성하다는 것은 승가 대중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 요즈음 불교의 미래를 염려하는 이유는 출가하시는 스님이 적어진다는 의미로 함께 걱정을 한다.

이런 시대에 학인스님들께서 공부하는 승가대학이 있는 운문사는 특별한 사찰이다. 천년의 숨결이 세속에서 물들어진 마음에 다가와 불성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운문사에는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여여하므로 誓說章句를 떠난 가르침을 주시는 삼신불이 있다. 어느 곳에서나 시시때때로 특별한 예경 없이 친견할 수 있는 부처님이다. 진실하게 될 때는 명성佛을 친견하고,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릴 때는 소나무佛을 친견하며, 춘하추동에 모습은 달라도 변함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은행나무佛을 친견할 수 있는 것도 운문에서 할 수 있는 신행이다.

운문에서 불교를 처음 만나 삼장을 많이 읽었던 공부는 神의 예비하신 길과 徐子平의 운명을 지나 불법으로 신행하는 이정표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리고 見指忘月로 문자공부에 몰두해 있을 때 문자를 떠난 禪공부를 권유 받았지만 그 또한 문자를 떠나 정진하는 禪도 문자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닌 禪敎一體 소견도 얻었다. 문자 공부는 禪공부의 방향과 활용 그리고 爲他人說하는 데 필요한 先과제라는 견해도 心經을 보고 四威에서 불교를 읽기 시작하면서 또 울력 공부로 바뀌게 되었다.

학인스님들이 계시는 운문사의 울력은 특별하다.

요즈음 경전과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불자들의 근기는 스님들의 많은 공부를 요구하고 예전과 다른 문화는 호미와 괭이가 아니라 컴퓨터와 모바일로 하는 가르침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빠른 변화는 하얀 고무신이 아니라 고급 승용차로 달려가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현세다. 이런 世態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의 적은 일이지만 대신하고 싶은 마음을 낼 수 있는 것도 운문사의 울력 덕분이다.

운문사에서 울력은 일에만 몰두하기 쉽다. 손에 든 일에만 집중하면 곧 천 길 낭떠러지에 지푸라기 없이 매달려 있게 된다. 그 자리가 即事而眞의 真인지 本地인지도 모른다. 다만 울력하는 나도 없고 懈怠한 남도 없다. 잘하고 못하는 것도 없고, 몸이 피곤한 것도 없다. 또한 지겨운 시간도 없다. 금강경의 무주상無住相은 모르지만 운문에서 울력하며 순간순간이라도 즐길 수 있는 맛이다.



대승기신론의 一心二門을 만난 소견은 한 마음이 중생과 부처 놀이를 즐기는 것을 지켜본다. 화엄경의 야마궁중계찬품은 “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印曼 應觀法界性에 一切唯心造니라” 하셨으니 중생과 부처 또한 마음이 만든 것이라. 대중이 모이면 밖의 부처를 보고 본을 받고 안으로 중생을 보고 반성하는 것이 곧 대중의 화평함이라는 것도 울력에서 더불어 배운다. 忍土에서 만나지 않으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법우, 부부, 형제 등 어떤 관계로든 만나면 기분이 좋을 때도 많지만 나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순경계보다는 역경계에서 불교 공부가 한층 더 필요하다는 것 또한 운문의 울력에서 배운다.

共業으로 한 시대를 함께 살면서 다행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동행하는 인연 또한 百千萬劫難遭遇다. 한 마음 안에 중생과 부처가 있어서 밖으로 세상에 부처와 중생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 같다. 각 양각색의 能所를 들고 모인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 되는 만공 스님의 “世界一花”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운문사의 울력 덕분이다.



절의 소임은 세간을 떠나 있는 살림이라 모를 일이지만 세간의 소임은 미래를 향한 분별사량이 없으면 집안 살림이 어려워진다고 염려해 주시며 오늘도 운문에 갔느냐고 묻는다면 감사함에 중국 앙나라 山中宰相 도홍경의 詩로 합장을 드리며 이 글에서 물러간다.

山中何所有 산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嶺上多白雲 산마루에 흰 구름만 많다네
只可自怡悅 다만 혼자 스스로 즐길 뿐
不堪持贈君 감히 그것을 가져다 님에게 드릴 수가 없네.

지심귀명례 승가야종
至心歸命禮 僧伽耶衆

“100점”

법여 / 사미니파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차문반 법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옛적에 활 쏘는 것을 좋아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훈련하여 지금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쏘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솜씨가 되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활을 겨루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다가 숲에서 여기저기 나무에 화살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잘 보니까 모든 화살이 원형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제는 놀람과 동시에, 혹시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이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까지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활의 명수가 있느냐?”

“활의 명수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시치미 폐지 마라. 숲에서 화살이 하얀 원에 적중해 있는 것을 보았다.”

“아, 그 화살 말씀이십니까?”

“그 화살의 명수를 만나 승부를 하고 싶구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제 폐하. 그 남자는 바보입니다.”

황제는 분개하면서 말했습니다.

“바보라고? 활쏘기의 명수가 바보일 리가 없다. 이리로 데려 오라.”

“예, 폐하. 바로 아까부터 저기에 앉아 있는 저 남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황제가 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미의 행렬을 보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황제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좀더 훌륭한 웃자림을 한 현명해 보이는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황제는 그 사람을 말에 태우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네가 나무에 화살을 쏘았겠다.”

“그렇다~”

“여기까지 명중시키는 것은 나도 어렵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이냐?”

황제는 남자에게 화살을 주었습니다.

“간단하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근처 나무에 화살을 쏜 후 나무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하얀 분필을 꺼내서 그 화살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100 점!”

그렇습니다. 남자는 활쏘기의 명수가 아니라 단순히 활을 당겨 맞은 곳을 중심으로 원형을 그렸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솜씨를 가진 황제보다 부도 명예도 재능도 없지만 단순하게 살아 있는 이 “바보”가 ‘멋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욕망에 휘둘리기 바쁘고, 또 그 욕망에 집착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이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고 물건마다 분별하고 자기 의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五蘊, 즉 色, 受, 想, 行, 識의 무더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나’라는 관념이 없어지면, 그것을 기준으로 생긴 분별심이나 욕망도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나 어떤 순간에서나 단지 있는 그대로가 ‘100점’ 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 수행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운문사에서 수행하는 4년을 통해서 찰나찰나가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란 저의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送年과 迎年 사이에서

자성 / 운문사승가대학 강사



불기 2559년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순간,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과 동시에 새해를 맞이한다는 만남이 공존한다. 만남이 그려하듯 이별 또한 삶에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별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不在를 인식하게 된다. 함께 했을 때는 상대의 소중함을 모른다. 더불어 있었을 때의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우주 전체가 텅 빈 것처럼 공간의 허허로움이 몸으로 느껴질 것이다. 바로 空이 空이 아닌 色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虎溪三笑라는 故事가 있다.

東晉의 慧遠(334~416)은 21세 때 道安에게 출가하여 도안을 따라 각지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스승과 함께했던 시간보다도 이별의 아픔을 극복해야 하는 제자는 廬山으로 들어간다.

혜원은 이곳에 東林寺를 짓고 주석하게 된다. 이 절문 밖에 작은 시냇물이 있는데, 그 개울이 바로 ‘虎溪’이다. 慧遠은 오직 수행을 위해서 虎溪를 넘어서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였고 무려 30년간이나 산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귀거래사』로 알려진 詩人이면서 儒者인 도연명. 그리고 道術을 그리워하여 처자를 버리고 廬山에 온거한 道家의 陸修靜.

이 세 명은 막역한 도반으로 요샛말로 하면 절친이었다.

어느 날 도연명과 육수정이 혜원을 찾아왔다. 셋은 儒佛道를 넘나들면서 호탕하게 서로의 法悅 속에 노닐다가 그만 배웅 길에서 慧遠이 虎溪를 지나치게 되었다. 손님이 돌아갈 때 시냇물을 건너려고 하면 그 때마다 호랑이가 울어서 이 개울 물에 ‘虎溪’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慧遠은 그 어떤 客이 찾아와도 질문까지 배웅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만 혜원이 虎溪를 건너버렸던 것이다. 자신이 그어 놓은 聖界에서 俗界로 뛰어 넘은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 때 慧遠의 마음은 어땠을까? 호탕하게 웃어야만 했으리라.

1988년 비구니와 수녀님, 그리고 원불교의 정녀가 종교 간의 화합을 추구하는 만남을 만들었다. 〈三笑會〉라는 합창단이다. 이는 혜원과 도연명과 육수정의 虎溪三笑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종교 간의 화합은 둘째 치고 같은 종교의 올타리에서 한 솥밥을 먹고 살아도, 더불어 마음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 개성을 존중해주고 인정



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돌이켜보니, 강원 4년간 다른 사람의 꼴 봐주는 작업을 했지만, 한정 자은 숫자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건 인내뿐이었다. 풀무더기를 바위덩어리로 놀려놓아도, 주머니 속의 송곳같이 그 생명력을 감출 수 없듯, 참아내는 일도 한계가 있나보다. 아니, 참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예전의 나를 떠나고 싶다. 나를 뛰어넘어 호탕하고 질박하게 타인의 경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천칠백년의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전달되는 豊遠의 모습. 마음 맞는 도반들과 호탕하게 道談을 주고받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는 너 무나도 그립다.

우린 누구나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 짧게는 주말여행에서. 길게는 죽음의 여행을. 긴 여행의 채비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단단히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피한다

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다. 삶 속에 그냥 죽음이 들어 있다고 자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면 죽음도 자연스레 내 옆에 있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편안한 사람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격정의 목소리가 앞설 때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진다. 마음을 내어 보려 해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心. 없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님을 이론적으로 모르는 것이 없다. 解悟에 그치는 내 인생이 떅하다. 少欲하고 知足하려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도 있다. 욕망의 터널을 인지하지 못한 탓이다. 출가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初心이다.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편안해진다. 바늘구멍의 마음을 버리고 다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온다. 모두가 同根인 것이다. 내 부처와 네 부처가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이다. 출가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我)라는 色身의 고치에 갇혀서 박제화가 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 결국 죽음이라는 이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줄 뻔히 알면서도, 나는 무엇을 고집하고 무엇에 집착하는 것일까? 2015년을 보내는 일이 정말로 녹록지 않았다. 이별을 했어야 했고, 이별의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야 했었다. 2016년은 성숙한 자신으로 맞이하고 싶다. 送年과 迎年 사이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추슬러야 하는지를. ☺

불교문화콘텐츠파크 ‘인드라월드 (IndraWorld)’를 제안하며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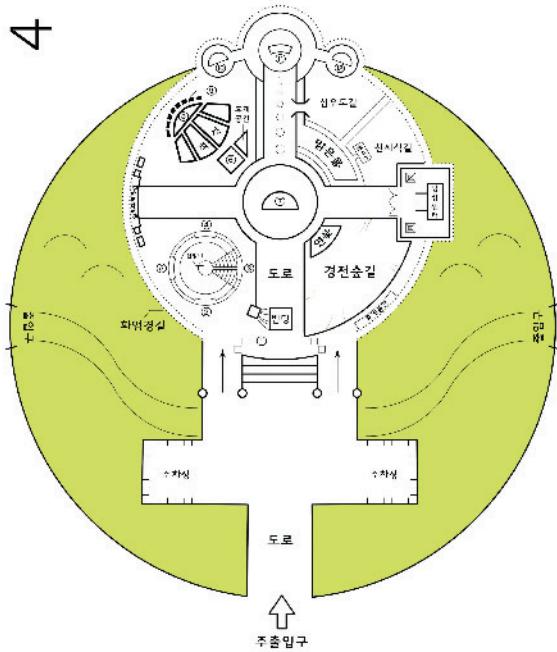
혜도, 선우, 무이 / 사집과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개념과 사례
 - 1.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개념
 - 2. 불교문화콘텐츠파크 조성에 참고 할 만한 사례
- III.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평면도와 상세 설명
 - 1. 불교문화콘텐츠파크 평면도
 - 2. 불교문화콘텐츠파크 상세 설명
- IV. 나가는 말
- V. 참고문헌

III.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평면도와 상세 설명

1. 불교문화콘텐츠파크 평면도



- | | |
|------------|---------------|
| ①사전왕 미니어처 | ⑦주불(현재불) |
| ②전시관 | ⑧공연무대 |
| ③미니어처관 | ⑨팔상성도 조각상 |
| ④도서관 | ⑩과거불 |
| ⑤영상관 | ⑪나도 부처래(來)조명물 |
| ⑥'법계도 '미로' | ⑫미래불 |

2. 불교문화콘텐츠파크 상세 설명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至心歸命禮 十方三世 帝網刹海)~” 출가자인 필자들은 적어도 하루 세 번 뜻을 새기며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제망의 제帝는 베다 신들의 우두머리 신 인드라(Indra)의 한 역 제석천帝釋天을 말한다. 제석천은 수미산 정상 도리천의 임금으로, 인드라망으로 장엄되어 있는 선견성에 살면서 사천왕과 32천을

통솔하고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한다고 한다. 이 그물이 펼쳐지면 온 우주를 모두 감싸고, 그물로마다 투명 구슬이 달려 있는데 그 구슬에는 우주 삼라만상이 휘황찬란하게 서로서로 다른 구슬에, 공간의 구슬은 시간의 구슬에 투영된다. 동시에 겹겹으로 서로 서로 투영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장엄한 광경이며,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세계다. 온 우주를 감싸듯 부처님 또한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항상 존재하고 상주불멸하는 것을 의미하며, 스스로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더불어 존재하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의 진리를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으로 비유한다.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세계, 그 세계는 무한으로 관계하여 뗄 수 없는 세계’, 인드라망이요 법계이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이다. 현재 우리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드라망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달라이라마께서도 “21세기의 세계경제는 수 많은 나라들과 그 국민들을 서로 의존하도록 만들 어 버렸다. 따라서 나라들끼리 서로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폭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종오와 연민의 마음이 결여된 상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인간의 마음에 종오가 도사리고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¹²⁾ 이러한 의미에서 ‘인드라월드’라고 명명한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종교 실태와 의식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한국인의 종교 1984~2014」¹³⁾에서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한국인의 종교 분포는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로 불교와 개신교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불교인 비율은 2030 세대(약 10%)와 5060세대(30% 상회)의 차이가 큰데 반해,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의 연령별 분포는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3대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 ‘개인 생활에 종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약해졌지만, 불교인의 경우 1984년 88%; 2014년 59%으로 상대적 하락폭이 커고, 개신교(1980년대 97%; 2000년 이후 90% 수준 유지), 천주교인(1984년 97%; 2014년 81%), 그리고 비종교인(1984년 48%; 2014년 30%)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다.

또 종교를 믿는 전체 응답자의 50%에게 현재의 종교를 몇 살 때부터 믿게 되었는지 물은 결과, ‘9세 이하’가 26%로 가장 많았고 ‘10대’ 12%, ‘20대’ 19%, ‘30대’ 21%, ‘40대’ 16%, ‘50세 이상’은 6%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전부터 현재의 종교를 믿은 사람은 개신교인의 경우 46%로 절반에 달했고(9세 이하 31%, 10대 15%) 천주교인(36%)과 불교(31%)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30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보자. “오늘날 하나의 거센 물결이 전 세계에 밀어 닥치고 있다”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한 앤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출간되었던 해가 1981년이다. 이 책은 당시 미래였던, 지금은 일상이 된 이 시대를 많은 부분 예측하고 있다. 정보혁명으로 무장한 ‘제3의 물결’은 대량생산, 대중소비, 국가중심의 경제체제를 지닌 산업사회를 붕괴시킬 것이라 예측했다. 지식 집약적 생산기술과 정보처리 전달기술의 범지구적 확대로 소량 고부가가치 유연생산, 탈집중화, 탈획일화로 대표되는 ‘제3의 물

12) 달라이라마, 삶을 이야기하다, 북로드

13) 한국갤럽에서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관해 30년 간, 5회에 걸쳐 사회 공익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담은 연구 보고서

결’의 정보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미래의 권력은 지식, 지력이라는 권력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자유의지를 펼치는 새로운 인간형이 등장한다고 했다. 그가 말했던 이미 일상생활이 된 ‘정보혁명’을 태어나서부터 접하며 자라서 2010년 이후 사회의 주요 노동인구계층이 된 세대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이다. 이 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하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익숙한 사람들이며, 내 집 마련 등 소유에 대한 개념은 약한 편이고, 효율성과 가치를 중시한다. 틀에 박힌 일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경제와 소비의 중심계층이다.’¹⁴⁾ 풍요로운 것 같으나 여유롭지 못한 그 어느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급변하는 대변혁의 시대인 초고령화, 초연결 사회¹⁵⁾를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인드라월드를 이용할 주요 대상계층이다. 전세계는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 북 등의 SNS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최소화된 상태로 문화콘텐츠를 공유하며 동질감을 느끼며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물리적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이 새로운 ‘가상 국가(Fictional Country)’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불교도 초연결 사회와 기술 발전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인간과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와 문화의 변혁을 맞이할 방편을 준비해야 할 시점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제안한 인드라월드의 명칭에 대한 의미와 각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상세 평면도를 보면 중앙의 주불을 중심으로 한 4개의 공간과 전체를 아우르는 큰 원을 포함한 총 5개로 된 공간을 볼 수 있다.

인드라월드 전체 공간, 조형물들, 배치되어 있는 건물과 관련 시설물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 남녀노소 비장애인(이하 ‘일반인’)이나 장애인,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 누구나 편안하게 걸어올라 갈 수 있도록 램프와 계단의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전통 사찰의 장엄들은 만지거나 촬영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에 인드라월드를 이용할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불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방문을 유도하고,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전체 공간은 언제 어디서든 개인이 하는 행위들을 자료로 남기고 즉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포토존이 되면서 한편 자연스러운 공유를 통해 배포되는 불교 관련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안내센터에서 종이안내문 또는 디지털이용안내, 안내인의 대면서비스를 통해 어느 공간부터 이용할 것인지를 정한다. 관련 공간과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해설서비스는 일반적인 해설서, 디지털기기나 스마트 워치¹⁶⁾를 이용한 해설, 관련되어서 제작된 특수 앱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일반 사찰에서 만나는 커다랗고 무서운 사천왕이 아닌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만질 수도 있는 150cm 정도 되는 사천왕 미니어처

14) 다음(www.daum.net) 백과사전

15) 초연결 사회 :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Things)이 서로 ‘교감’에 바탕을 두고 연결됨으로써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구축,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사회

16) 예시: 삼성리움미술관의 도슨트디지털가이드 Galaxy Note 2이용, LG화담숲의 해설 G-watch 서비스

가 반겨주는 공간이다. 입구 계단은 본전(법당)과 주불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도 부처來' 조형물이 보일 수 있도록 공간디자인 되어, 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존이며 인드라월드 전체의 뷰포인트 역할을 한다.

본래 '사찰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탑을 중심으로 많은 전각을 배치하여 불국토를 형상화한 성스러운 공간이다. 사찰로 들어서는 것은 불국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사찰을 구성하는 여러 건축물 가운데 불전佛殿은 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으로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수행과 신행이 이루어지는 중심공간이다. 따라서 불전은 시대를 막론하고 높고 웅장한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내고자 최고의 장엄이 이루어졌다. 고대부터 이행되어 온 불전의 상징성은 당시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원력을 통해 발현되었다.'¹⁷⁾처럼 현재 사찰의 본전은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이미 많은 곳에서 전통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인드라월드의 본전을 포함한 전체 시설물과 공간,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다양한 현대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직관적으로 장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불국토를 경험하게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계층에게 전통과 현대, 불교의 종교성과 세속사회의 기술과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학습되고 경험되도록 하며, 대상이 속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장엄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1) 주불, 본전(법당)과 입구 '나는 부처來' 조형물 : 전체 공간의 중심 부분
- 동쪽의 주불과 멀리 '나도 부처來' 조형물을

마주하는 공간으로 본전은 1층을 필로티로 하고 2층에서 주불을 바라보며 예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작은 부속건물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회와 이용대상별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다.

건물의 외부는 주불과 경전숲길, 구산팔해, 수미산 전망대를 조망할 수 있는 동쪽, 남쪽, 북쪽은 개방 가능형 시스템 창호가 설치되고, 서쪽 외벽과 지붕 등에는 태양광을 위한 태양전지 어레이와 태양열을 위한 집열기가 태양고도에 따른 각도 변화가 가능한 형태로 벽에 설치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용화가 된다면 연잎효과를 응용 개발한 초발수성 표면제작기술¹⁸⁾을 이용한 '자정작용 폐인트', 빛의 투과율에 따라 투명도가 조절되는 스마트 윈도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본전 내부의 서쪽 벽은 식물의 바이오 필터레이션¹⁹⁾ 기능을 활용한 벽면녹화 시스템인 '바이오 월(Bio wall)'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 건물로 구현할 수도 있다.

좌식과 입식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된 공간은 대상 계층의 선호도나 근기에 따라 주불을 향해 절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공간에서 다양한 수행이나 명상 프로그램 참여, 불교 관련 영상을 보거나 대상별 특별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공간으로 만들어 친근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한 본전을 계획하였다.

'나는 부처來'는 중앙 좌대에 올라서거나 어린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형물로 중생이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곳이다. 특히 일출과 일몰 등에 아름답고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주불 양 옆의 과거불과 미래불

17) 붉고 푸른 장엄의 세계, 14p. 불교중앙박물관

18) 포항공대신문 <http://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4598>

19) 바이오 필터레이션: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식물 잎에 의한 흡수 제거 능력, 미생물 영양분과 배양토에 의한 흡착 등에 의해 식물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것. 농촌진흥청(<http://www.dHa.go.kr>)

온 어린이들의 키높이를 고려하여 150cm 정도로 제작하여 부처님들이 멀지 않은 내 옆에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싶다.

2) 경전숲길, 명상센터, 선지식길, 십우도길 : 명상 공간

“비구들아, 모든 것은 쉴 사이 없이 변해가니 부디 마음속의 분별과 망상과 밖의 여러 가지 대상을 버리고 한적한 곳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라. 한결 같은 마음으로 방일함을 원수와 도둑을 멀리하듯 이 해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마치 낙숫물이 떨어져 돌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정진해라. 비구들아, 이것이 여래의 최후의 설법이니라.” 필자들처럼 출가자들에게 큰 울림이 있는『대반열반경』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읽고 사색하며 걷다가 앓거나 누워서 쉴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는 공간이다.

“Think Different”,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 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잡아들고, 그러면 보다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라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혁신가이며 선수행자였던 스티브 잡스의 말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불교의 평면적인 탱화나 부조 형태의 조각을 입체화하거나 불교 장엄구를 갑각 센서와 정보기술을 이용한 장치들과 결합 현대화시켜 이용자들이 불교문화를 예술로 감상하고 접하며, 불법을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선지식길을 걷고 관련 전시와 프로그램도 참여하며, 불보살님과 제자와 조사들을 자료로 만나보고 예경도 하며 나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었다. ‘몸’을 위한 부속 기관인 ‘뇌’가 주인 행세를 하다보니 몸에서 유리되어 체멋대로 노는 것이다. 각종 신경질환이 발생한다. 히스테리, 우울증, 정신분열, 공황장애……. 몸의 ‘종’이 되어야 할 뇌가 ‘주인’ 노릇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질환들이다. 불교 수행의 1차 목표는 뇌가 분수를 지키게 하는 것이다.”²⁰⁾라는 것을 알고 불교 전통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하거나 가볍게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게 한다.

명상센터에는 스마트윈도우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명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❾

〈다음호에 계속〉

20) 김성철, 「눈으로 듣고 귀로 읽는 봇다의 과학 이야기」, pp125~126.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편집부

소 차는 다니야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 놓았고, 마히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커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세zon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 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소 차는 다니야 “쇠파리들이나 모기들이 없고, 소들은 강늪에 우거진 풀 위를 거닐며, 비가 와도 견디어낼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세zon “내 뗏목은 이미 잘 엮어져 있고 거센 물결을 이기고 건너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더 뗏목이 소용없으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 다니야의 경 (Dhaniyasutta) 중에서



시래기도 말려 놓고 꽃감과 무말랭이도 장만했으며, 부뚜막의 불은 타오르고, 장작도 쌓여 있으니 하늘이여, 추위를 보내시려거든 보내소서. 🌸

부처님의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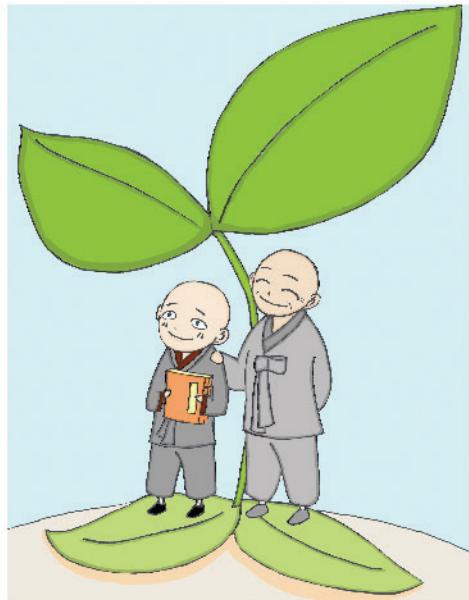
도원 / 사미니파

제가 살고 있는 청풍료에는 약 60여명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합니다.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도반 스님들이 정말로 몸도 마음도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울했거나, 화가 났었더라도 이 글을 읽는 동안, 잠시 평온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부처님의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씨앗이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요술램프’ 와도 같습니다. 저마다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고, 사용법이 간단해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친척들은 언제나 저에게 출가를 권하며 사찰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학생회시절은 부모님 손에 아끌려 다녔고, 청년회로 올라가서는 연동축제의 묘미와 신행 생활이 버무려진 친목활동의 즐거움에 빠져 지냈습니다.

사찰에서는, 성당의 고해성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느 날 저는 늘 다니던 사찰이 아닌 우연히 들렀던 절에서, ‘출가’가 아닌 ‘잦은 출가권유’로 인한 고충을 꺼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님은 출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출가를 권유하기 때문에 뻔한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절인연일까요? 당시 스님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남들처럼 대학과 취업, 결혼 등의 고민을 끌어안은 채, 사찰의 고요함과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웬지 모르게 직업만족도 조사를 하면, 스님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 영뚱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소 궁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가벼운 마음으로 출가를 결정했습니다.

가뿐했던 마음과는 달리 출가 후의 삶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경제사항의 일부는 부모님의 잔소리와 흡사해서 무척 놀랐습니다. 또 어려웠던 것은 “네, 스님~”하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도 해보았지만 막상 하려면 잘 안 되었습니다. 염불도 크게 하라고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또한 ‘문지마 하심’은 선이해-후실천주의자였던 저에게 가장 커다란 임무였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동아줄이 있겠지만 저의 동아줄은 주로 경전이었습니다. 행자시절 법구경을 읽다가 불퇴전의 밑거름이 되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내 하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스님께서는 저의 부정적인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끈기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멋대로인 나는 별것 아닌 것에 고집을 피우곤 했지만, 스님은 고집쟁이로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행자 때는 사실 하도 많이 혼나서 문안인사도 후다닥 하고 나올 만큼 멀게 느껴졌던 은사스님이었는데, 제 안의 부처님의 씨앗을 봐주셨고 부처님의 제자로 봐주신 것입니다. ‘나는 네 본 성품을 안다. 너는 착한 아이야.’ 이렇게 마음 깊이 믿어 주셨습니다. “대답도 염불도 크게 해야 네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단다.” 라며 큰 실수를 해도 평소처럼 축원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자연스러운 예스맨이 아니라, 훈련 중인 예스맨 기초과정 수강생 정도에 불과하지만 예스맨으로 거듭날수록 마음은 가뿐했습니다. 운문승가대학은 약 170여 명이 함께 하는 대중처소입니다. 여기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은, 생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씨앗이란, 휘둘리지 않고, ‘본래’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절, 사경 등 나름의 수행방법으로 순간순간 마음을 바라볼 때 이 힘이 길러지고, 모이면 가장 평범한 오늘의 기적을 낳습니다. 꽃 피고 새우는 것이 기적이라는 큰스님들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지만 가장 정확한 해답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고통도 안락도 한순간이요, 오온의 무더기는 잠시 모였다가 흩어질 뿐이라는 것을 훤히 보셨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며,
믿음은 최고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 법구경

이것이야말로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님의 씨앗’이 있다는 것, 우리도 그분처럼 갈애의 휘둘림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가 순수한 평온에 들길 바라며 부처님의 넓은 품으로 초대합니다. ♪

쩌렁쩌렁 금강경

시우 / 사집파



꼭자지껄 우리 사집반이 남아 있던 여름방학, 가마솥 점통 더위 속에 매일 지장전에서 금강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몇 분이나 단축해서 독송하나 호기심 어린 재미에 죽비소리 나자마자 마치 백 미터 육상선수처럼 숨을 헐떡이며 재빠르게 독송을 마치고 나면 무사히 골인점에 도달한 선수처럼 안도의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읽으면 어떻게 따라 읽느냐고 투덜거리는 도반스님의 이야기는 잠시 일주문 밖으로 멀리 보내고 어김 없이 기도시간이 되면 우린 무언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이고 수보리… 하이고 수보리…”를 앵무새처럼 짖어대며 쑨 살같이 독송을 마치고 후우~ 하고 숨을 내쉬며 익살스런 웃음을 지어봅니다.

막연히 기도려니, 금강경이니깐… 별 다른 생각 없이 함께 어울려 하는 독송기도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 보름이 가고 한 달이 지나고 금강경 기도가 끝나갈 무렵 은사스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면서 하는 건 머리 긴 속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머리 깎은 중이라면 속인들과 달라야지!” 강원 4년 동안 차문 반부터 이것저것 외워왔는데 졸업하고 나니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선배스님들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평생 중노릇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금강경을 외우자!”

마음을 먹고 바로 암기 집중삼매에 들어갔습니다. 암기 중에 도반스님들이 말을 걸어오면 서슬 퍼렇게 도끼눈을 뜨고 강력한 레이저를 쏘아 대곤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오로지 금강경만을 외었습니다. 주머니엔 늘 금강경 쪽지가 들어 있고 일부자리를 껴면 베개 옆에는 늘 금강경이 함께 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들으며 소리 내어 외워야 머릿속에 남는다는 노스님 말씀에 행자 때 외웠던 계초심학인문과 발심수행장은 지금도 제 도량석 18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에 잡히는 책장의 두께가 점점 얇아져가고 삼장원 앞마당에 노란 은행나뭇잎이 금가루를 뿌리듯 날리는 날 제 금강경 암송이 끝났습니다. 수백 번 중얼거렸던 금강경… 밤중에 금강경을 외우다 잠드는 날이면… 수보리, 수보리. 어이오나(어의운하)… 웅얼웅얼 잠꼬대를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무수히 일렁이는 수많은 생각들. 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수행자는 자신 앞에 놓인 험난한 산과 같은 장애를 장애라 여기지 않고 수행의 과제라고 여깁니다. 내 앞에 어떤 절망과 슬픔이 오더라도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돋기 위한 나를 정신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고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감사한 공부라는 것을 압니다. 번뇌 망상이 생길 때마다 수십 번 금강경 속으로 돌아갑니다.

지심귀명례…

지심귀명례…

지심귀명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빈 마음으로 설수 있을까? 얼마나 더…

살다보면 이게 아닌데 느끼면서도 놓지 못하고 끌려갈 때 부처님 법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방황하고 있을 때 길을 열어 줍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길 부처님 가르침을 이정표 삼아 두려움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오늘도 제 아뢰야식의 한 부분이 금강경으로 꽉 채워지도록 독송하고 있습니다. ☺

버팀목

소윤 / 사교과

살다보면 망망대해에서 있는 것처럼 길을 잊을 때도 있을 테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절벽에서 있는 막막함이나 불투명한 공허함도 찾아올 것이다.

(…)

그대가 어디에 처해 있든, 어느 곳에서 수행하더라도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그대의 길에 등불이 되어주실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대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지지자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모든 이들이 그대를 비난하고 혐난할지라도 100% 그대 편에서 있는 스승이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어느 길을 선택해 가든 간에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그대를 향해 열려 있을 것이다.

— 2011년 어느 날, 은사스님의 편지

익숙하지 않은 행선을 고쳐 뚫고, 신입생 방부 준비물을 꾹꾹 눌러 담은 결망을 옆에 두고 서 있는 내게 호통이 날아든다. 가슴 한가운데 꽉 박히는 은사스님 목소리에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다. 기차역으로 가는 내내 시큰해지는 눈가를 지그시 눌러본다.

치문 첫 철, 바쁜 와중에서도 은사스님을 떠올리면 난 금세 우울한 기분에 빠지곤 했다. 계절 따라 다채로운 빛깔들이 흐드러지건만 도리어 부질없이 느껴지던 것은 왜였을까. 그 시절 내 눈에 비친 세상은 그저 무채색이었다.

삭발도 안 한 유발행자로 은사스님 토굴에서 지낸 지 이를 째 되던 날이었다. 네가 지낼 곳은 여기가 아니고, 운을 떼며 스님은 외출 준비를 서두르셨다. 도착한 곳은 노스님의 절이라고 했다. 은사스님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게 그저 무뚝뚝하게 몇 마디만을 남기셨을 뿐이다. 오고 싶다고 이제 마음대로 돌아오면 안 된다, 은사와 상좌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신뢰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들. 그려곤 미련 없이 돌아서 가버리셨다.

이후 은사스님과는 간혹 재일에 뵙는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절 한 자리 받고 나신 후에는 따로 말을 걸지도, 부르지도 않으셨다. 사미니계를 받고 나서도 꼬박 일 년을 노스님 절에서 지냈다. 강원 입학을 보

름 앞둔 날에야 은사스님의 토굴로 짐을 옮겨왔다.

편한 세속의 짐을 떠나 낯선 절로, 익숙한 노스님 절을 떠나 어려운 은사스님 절으로, 다시 모든 게 새로 시작이었다. 불편한 동거라는 말이 빼저리게 실감났다. 잘해보려고 한 것이 화근이 되기도 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한 노력은 변변치 못한 시늉이 되기 일쑤였다.

억울했다. 백번을 물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묻지 않으시고 변명은커녕 코도 한번 훌쩍 못하게 하셨다. 순간순간 스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이 스치기는 했지만, 이내 가슴 가득 차오르는 서러움에 저 멀리 사라졌다.

그렇게 이 년을 서먹하게 지냈다. 크고 작은 부딪침으로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이만하면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맹랑한 아상我相이 서서히 고개를 치켜들던 어느 날이었다. 은사스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내보이셨다. 나만큼이나, 당신도 힘드셨다고.

제자가 느끼는 억울함을 외면하셨던 건, 몰라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와 돌이켜보면 제 생각으로 가득 차 하등대는 새파란 제자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어른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다.

그날이 그날이고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 도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치열하게 살아보니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은 아니었다. 그 이후부터였을 것이다. 철벽처럼 단단한 내가 있다는 걸 미약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했다.

은사스님은 아마 처음부터 저편의 나를 뛰뚫어보셨을 터였다. 모난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기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신 것은, 모두 부족한 제자를 향한 배려였다. 결국 스승은 단 한 번도 마음에서 제자를 떠나보내지 않으신 거였다.

은사스님의 호통에 눈시울을 붉히고 기차에 올라타던 그 날로부터 어느덧 3년이 지났다. 한때는 은사스님의 토굴로 돌아가는 일

이 두려워 어서 남은 방학 소임을 사는 상반이 되었으면, 바랐던 적도 있었다. 그랬던 내가 벌써 상반이 되어 운문사에서 옮겨올을 나게 된다. 어쩐지 서운함이 몰려온다. 예전히 나는 어설프지만, 겨울이 지나면 은사스님께 서를게나마 내 마음을 전해보련다.

이 길을 걷다 지쳐 뒤통아팠을 때, 내 뒤에 당신이 묵묵히 서 계시리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고, 당신이라는 스승을 만나 이 문에 들어오게 되어 다행이라고, 언제까지고 든든한 등불이라고.

血緣과는 사뭇 다른, 단호하고도 묵직한 法緣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



회주스님!

치문반 일동



첫눈도 내리고 텔모자와 목도리를 두른 지도 한참이고, 이런저런 정황들은 겨울
임이 분명한데 추위가 덜해서인지 중요한 양념이 빠진 김치처럼 심심하지만, 회주스
님을 비롯한 어른스님들의 법체를 생각하면 착하고 고마운 겨울입니다.

회주스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차 도량 내에 가장 깜찍하고 신선하며 운문사의 명성을 법계 만방에 드날
릴 준비로 이제 막 첫 걸음마를 시작한 치문반입니다. 저희 치문반 26명이 회주스님
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회주스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
하고 출가해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회주스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문사 강원
을 들어오기 전부터 그리고 들어온 후에도, 법랍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모든 스님
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주스님이 계신 그늘에 머물 수 있음을 크게 감사하고 큰 복으로 알아 많이 배
워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치문반은 아직 천지분간도 제대로 못하는 승가
새싹들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심귀명례 차사
창건 대공덕주 원광국사 보량국사 원옹국사 삼대화상 제대조사. 지심귀명례 차사중
홍 대공덕주 명자성자 회주스님~~)

팔정례 차사창건 대공덕주 계송 다음에 입 밖으로 내진 못하지만 마음속엔 늘
회주스님도 함께 떠올려 지심귀명합니다. 저희가 이 아름다운 도량을 집과 같이
마음껏 노닐며 최상의 수행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주스님!

저희 치문반은 하얀 모자와 목도리를 하시고 도량을 조용히 거니시는 모습의 회
주스님을 뵙고 있습니다. 단아하시고 반듯하시며 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께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금강경』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들
었습니다.

우리는 높고 높은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깊고 깊은 진리를 설하신 경전이





라는 경직된 사고로 금강경을 바라봤는데, 가장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상상하자 한없이 따스하고 정겹고 환희심이 났습니다. 스승이신 부처님께선 ‘선재선재’라 하시며 제자를 어여삐 칭찬하시고 제자인 수보리 존자는 스승께서 설명해 주시는 깊은 뜻을 척척 헤아려 알아차리며 나누는 대화!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이 계시다면 우리 치문반에겐 회주스님께서 계시니 저희는 수보리 존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조금 부럽습니다. 수보리 존자처럼 척척 알아듣는 지혜는 없을지라도, 한없는 존경심과 환희심으로 가득한 눈망울로 회주스님만 바라보며 한자한자 가슴에 회주스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을, 그렇게 저희도 회주스님과 세상 가장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치문반은 모자라기에 소리를 내고 어리석기에 철렁거리며 쉬 흔들리고 시냇물과 폭포처럼 큰소리를 내고 요란스럽습니다. 저희에게 회주스님처럼 거대한 강과 같이 조용히 흐르며 흔들림 없이 늘 고요하고 평화로운 깊은 연못처럼 살 수 있는 법을 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치문반이 항상 꿈꾸던 일, 회주스님의 법의 그늘에서 치문반의 혈역임과 산란함을 풀 쉬는 일! 이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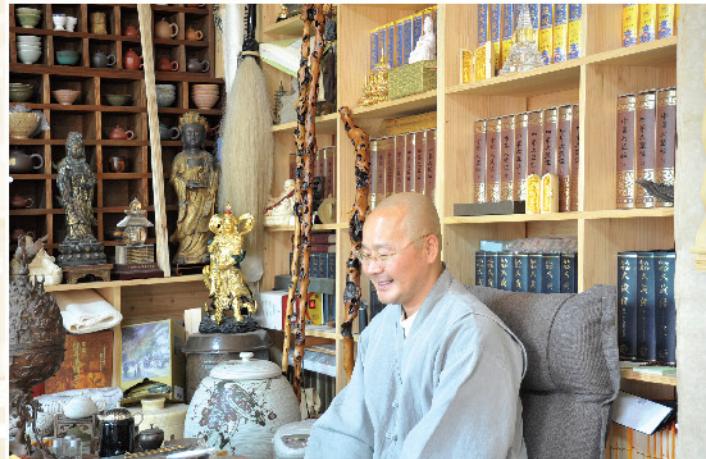
존경하는 회주스님!

저희 치문반은 탐진치를 버리고 자비와 믿음을 키우며 세상의 힘들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자비의 등불을 밝혀 운문사에서 배우고 익힌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수행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오늘 회주스님의 생신을 맞이해 새로이 세우는 우리 치문반의 이 서원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오랜 시간 함께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오며 편지를 맺습니다. 부디 추운 겨울 내내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법체 청안하시며 새롭게 펼쳐질 병신년에도 지금처럼 늘 고귀하신 우리 회주스님의 모습 됩기를 청하고 무량복덕의 새해 하늘이 활짝 펼쳐지시길 합장 올립니다. 다시 한번 회주스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미래세의 승가 꿈나무 치문반 26명 九拜. ☺

숨은 선지식을 찾아서

- 편집부 -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스스로 땅을 파고, 밭을 다 뒤지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반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간 곳은 경북 구미에 자리한 원각사, 원각 스님이다. 공교롭게도 원각경 중강을 한 다음날이라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이른 아침 발길을 옮겼다.

손톱을 다 길렀다니까!

해인사에서 가르치고 학감까지 했으니 학인들 사정 잘 알지. 조계종 승가고시위원 할 때 문제 못 풀어서 찔찔 매면 가르쳐 주고 했어요. 오죽하면 손톱을 다 길려서 콕콕 찍어줬을까.

부처님 공부하는 데 어떤 인위적인 제도나 규제가 스님 앞에서는 우스워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천진하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당신은 훌트러짐이 없으시다는 소문!

군소종단 스님들을 위해 강의 하신다는데…

외국 다니다 보니 군소종단 스님들 알게 됐는데,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조계종 아니면 전통강원도 못 가고, 승가대도 못 가고. 부처님 경전을 배울 만한 테가 없으니… 말할 수 없이 많은 종단이 있어요.

치문이든 서장이든 빌췌해서 한글 토 달아서 교재로 써요. 불교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지. 스님들을 잘 가르쳐 놓지 않으면 정법에서 벗어나기 일쑤니까. 일주일에 한번 4시간 강의에 조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는 이런 것이다 신도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강원에 있으면 잘 좋잖아!(웃음) 난 조는 사람 안 깨워. 들을 사람만 들어라 이거예요.

구미의 부루나 존자!!

|||| 2015년 3월 15일 점안식을 하셨네요.

부처님 당시 부루나 존자가 있었다면 이 시대에는 내가 부처님 법을 알려줄 수 있는 구미의 부루나 존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혜국 스님은 중명법사로 오셔서 법문비는 커녕 지갑에 있는 돈을 몽땅 주고 가셨죠.

우리는 신도가 없어요. 50명 정도인데 불사하니까 30명으로 줄어들대요.(웃음) 맨손으로 시작했죠. 큰 시주도 없이 전부 십시일반으로. 원래 건물 있었으나 오는 사람마다 무슨 걸이 아래?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예상보다 꽉절이 더 들더라고. 사는 게 그래요. 김장 해 놓고 시래기 말리고 쌀도 있겠다 걱정할 게 뭐 있어? 밥만 먹으면 사는 거. 스님이 딴 것 안하면 일 없어 그냥그냥 사는 거지. 편안하고 좋아요. 아무 걱정 없어. 10년간 빚 갚고 살다가 누군가 공부해서 맡아준다면 물려나야지. 뒷방으로 물려나도 밥은 먹여줄 것 아닌가!!

세 가지만 지키면 돼

지오 스님 모시고 서울 잠실의 불광사에 살았었거든. 난 총무였는데, 나중엔 1인 7역을 하게 되더라구. 스님들은 맡은 소임에 보시가 나가잖아요. 예불 한번 빠지면 5천원씩! 그래도 빠지는 거야. 그래서 만 원씩 제하고 그 돈을 나온 스님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많게는 30만원까지 제하는 경우도 있었어.

스님 모시면 세 가지만 지키면 돼. 스님들이 그걸 못 지켜서 맨날 혼나는 거지. 예불 빠지지 마라, 솔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대중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지키게 하셨거든. 원칙이에요.

지오 스님은 월남 공수부대에서 죽을 고비를 세 번이나 넘기고 제대하자마자 스님이 되셨대. 범어사 강원에서 공부하다가 졸업반 때 동국역경원에 시험을 보려갔는데 졸업을 안 해서 자격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알아야 공부해서 내년에 시험 보지 않겠냐고 해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금강경은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 한 분의 글자를 뒤죽박죽 섞어놓고 순서에 맞게 쓰고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정도의 해석을 써라. 이게 문제야. 지오 스님은 잠을 자도 꿈속에서 공부를 하실 정도이고, 원전을 3번 정도 읽으면 거의 외우는 집중력을 가지고 계셔. 답을 써낸 거지. 다른 사람들은 물음표 하나 그려 놓고 주장자 하나 그려놓고 답을 못 쓰는데. 결국 역경원 2기생으로 들어가셨어. 그렇게 들어간 봉은사에서 고비가 왔지. 종양이 발견됐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거지. 하루 동안, 뭘 할까 어떤 기도를 할까 책을 뒤져가며 고민하셨대. 그전에 지장기도 했었는데 지장보살멸정업진언을 지극히 아주 지극히 기도해서 병증이 그대로 멈췄대. 지금도 스님 찾아가면 냉장고에 렁겔병이 가득해.

당신께서 말씀하시길 인간 손영동이는 그때 죽었다. 지금은 지오의 삶이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나도 출가 이전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살아.

철저한 스승,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전강 제자

아주 오랫동안 스님 시중만 들고 다니니까 주위에서 왜 전강 안 해주나 이렇게 물을 정도였지. 대답하시길 ‘멀었어~ 스파르타식으로 더 가르쳐야 돼’. 지오 스님하고는 아주 편안하게 살았지. 어려우면서도 편안한 관계라고 할까.

부족한 게 많으니 끝없이 하는 거지. 전강 받으면 명에 하나 짊어진 거예요. 다시 전강해 줄 사람을 키워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고. 지오 스님은 당신의 죽보부터 신상에 관한 모든 기록을 전부 다 주셨어. 책임을 지라는 거여.

책은 회소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 중국어를 공부하셨잖아. 필요 없는 글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한 글자라도 빼놓지 않고 해석하시지. 저 화엄경(서재의 책을 가르치며)은 5000만원 들여 30질 찢었어. 꼭 볼 사람만 봐라, 장식인 책은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은 금강경인데, 어느 날 스님께 전체 경전 가운데 어떤 경이 제일 좋으세요? 하니까 금강경! 왜요? 금강경에는 아주 많은 게 들어 있으니까. 운성 스님은요? 역시 금강경! 거 참 묘한 인연이야. 나는 금강경오가해 번역 다 해서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었는데 스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금강경 번역했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좀 부담해라. 예에~

다 번역이 돼 있으니 난 뭘 할까? 고민해봤지. 강설을 해야겠다. 강설이란 강의하는 것! 세밀하게 하는 강의. 금강경에 언설장구란 말이 나오지. 언이란 바로 말하는 것, 설은 상세히 말하는 것, 장은 전체에서 어느 한부분만 뜯 것, 구는 장을 모은 것. 조계종 소의경전이 금강경이고 참고로 봐야 할 건 육조단경과 염송인례 왜 옛날 스님들이 금강경을 그렇게 주장했는가? 많은 스님들이 금강경은 상권만 보면 된다? 하권은 말이 비슷하다? 하는데 어렵없는 얘기지. 금강경의 수행체계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까지야. 묘각은 아니구. 1~5분까지 총설인데, 계, 정, 혜, 해탈, 해탈지견이 있고, 6분부터 다시 계, 정, 혜, 해탈, 해탈지견을 아주 상세히 해 가면서 이면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지.

절에 들어와서 한 20년 되니 경전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경전을 봐도 다 똑같애. 대승불교에 삼정관 수행, 사마발제 사마타 선나 이것이 부처님 당시 수행법이라고 봐.

4무량심 있잖아? 선나를 수행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내적으로는 4무량심이고 외적으로는 5신통이거든. 자비회사 중 희무량심 의미가 별로 없고, 베릴사 사무량심은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함으로써 선나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지. 배풀어 동질감을 느끼도록 한 후 선의 세계로 이끈다고 할 수 있지.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관을 자유자재하는 보살, 보살님들의 이름을 명확히 알면 이해가 쉬워. 보문품 보면 ‘무진의보살無盡意菩薩’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향해서 연민하는 마음은 다함이 없다. 천수경 ‘총지왕보살總持王菩薩’ 다라니를 뜻하는 총지 가운데 으뜸. 경전에 처음 등장하는 보살 이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지.

부처님 교설은 되게 간단해

고집멸도! 하나로 心!

인식하되 대상경계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돼. 생각이 움직이면 번뇌가 일어나는 거지. 최초일념을 돌이키면 부처라. 인식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본래 그 자리를 지켜야지! 안 뺏기면 곧 부처고 아니면 중생인 거야. 최초일념은 멀리 있지 않아. 당장 한 생각 돌이키면 돼. 부처의 세계란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면 대상경계에 끌려가지 않지. 양변을 여읜다 함은 이런 세계를 초월함이고.

“불교 이해로만 된다?” 천만에!

내가 어떤 얘길 했을 때 내 말에 ‘그거였구나~’ 듣는 사람이 완전히 믿으면 할 수 있어요. 단순한 이

해로는 실천이 나올 수 없다는 거지. 공부하게 몰아가는 것 그것이 스승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상좌 하나 있는데, 행자 때 웬글씨 교본 5개랑 웬 촉 사주면서 쓰라고 했지. 초발심자경문 무조건 외워라. 툭 치면 나올 정도로. 해인사 강원에서 우수한 성적이었지. 3학년 됐을 때 이제 시간 좀 나지? 좋은 다른 건 몰라도 붓글씨는 쓸 줄 알아야 한다. 제일 맘에 드는 서실을 찾아서 서예를 해라 했지.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글을 쓰라고 했더니 7시간 8시간을 하더라구. 지금은 대만 유학 보냈고. 대만은 철저하게 계율을 지켜요 공부하기 좋지. 내 말대로 했을 때 결과가 좋았거든. 믿고 따르는 거지.

불화도 그리신다는데…

81년도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90년도에 출품해서 900점 가운데 10개 안에 들었거든. 우리나라에 미술 분야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부장관상 상이 있는 건 한국전승공예대전이 유일하지. 요샌 특별한 일 아니면 잘 안 하게 돼.

■■■■■ 재주가 많으시네요?

에이 그건 스님도 하면 돼.

누굴 가르치려면 내가 해왔던 배웠던 방식으로 하면 잘 안 해. 빨리 크려는 생각만 하지. 은사가 돼서 중만 되게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돼. 나는 어렸을 때 공부에 한이 맷혔어. 은사스님이 학비 하나도 안 대주고 대학도 못 가게 해서 부친 살면서 힘들게 배웠거든. 내가 복이 없구나 생각했지만, 지금도 후회는 안 해. 나는 내 상좌에게 최선을 다해준다! 설사 장가를 가더라도 불교를 등지진 않아.

학인스님들을 가르쳐 봐서 잘 알아. 길은 제시해 주지만 결정은 순전히 본인이 하게 해야 해. 지금은 그 의미가 좀 퇴색했지만, 앞으로는 다시 전강을 받는 시기가 올 거예요. 또 강원 졸업 후 선방 가면 호흡법 잘 익혀서 공부해요.

■■■■■ 부처님 공부하겠다는 사람에게 무한한 애정을 베푸시는 관세음보살님 같다. 실제로 정말 고우시다! 속일 수 없는 진실이 있다면 수행자의 얼굴이 아닐까. 욕심 없이 겸손하게 살아오신 향내가 말씀마다 묻어나는 듯하다. 계향, 정향, 혜향… 매일 하는 예불 오분향을 떠올리며, 공부하는 사람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본다. ☩



불이관음도



관음자용도



수월관음도



원각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강사, 학감 역임

대한불교조계종 승가고시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현재 구미 원각사 주지

한국전승공예대전 <관세음보살32시현도> 특별상 수상



거짓 없는 표현

아도 / 47회 졸업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출가한 지 어느새 10년차... 수행자로서의 삶은 최대의 화두였다.

석남사와 운문사를 거쳐 온 시간 동안 대중생활은 어느 정도 익혔지만 출가수행자로 굳은 심지를 가지고 홀로 서기엔 너무나도 부족했다. 그리고 시은施恩을 갚으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절실했다. 비록 예상치 못했던 진로이긴 했으나 학교를 간다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동국대(경주) 진학을 위해 실기를 준비하던 어느 날!

잠깐 쉬는 동안 운문사에서 배웠던 난蘭을 치고는 괜찮게 그려졌다는 생각에 도반스님에게 보여주었다. 도반은 잘난 척이 물어난다고 얘길 했는데 뒤통수를 한 대 얹어맞은 듯 했다. 난을 치면서 ‘나 꽤 잘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 294×202, 장지에 수간채색(분채, 석채¹⁾), 2015년 作

상호相好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부처님에 대한 관념의 틀을 깨고자 하였다. 부처님이 들고 있는 민들레 홀씨 속에 날날의 씨앗이 존재하고 이 씨앗들이 바람(인연)에 의해 날아다니다 정착하게 되면 그 속에 잠들어 있던 아기부처님(佛性)들이 깨어나 또 하나의 세상(法界)을 이룬다. 홀씨(중첩된 법계) 안에 날날의 씨앗(법계)이 있고 그 씨앗 속에 또 홀씨가 포함되기를 빙복한다. 시공간을 넘어서서 한계 없이 펼쳐지는 〈연화장 세계〉의 중중무진법계重重無盡法界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하는데… 오오…’라고 생각하며 우쭐했었고 그 마음을 짚어내는 도반에게 눈앞에 중거를 버젓이 두고는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 불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나의 원願과는 달리 우쭐하고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잔뜩 묻은 그림으로 비춰졌다니…’ 속옷까지 벗겨져 빨가벗고 서 있는 것 같아 부끄럽고 참담했다.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하겠구나! 나를 바로 보지 않는다면 편안함은커녕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거짓 그림을 그리게 되겠구나!’

짧은 순간 이 모든 생각들이 스쳤다. 아팠지만 그 현실에 주저앉고 싶지는 않았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좋은 그림이든 좋지 못한 그림이든 그렇게 그림은 나를 속일 수 없는 창窓이 되었다. 그 뒤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염念을 돌리고 순간순간 그림을 대하는 나를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림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무지렁이’에 가까웠던 나는 편입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분채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수간채색²⁾을 만나게 되었다. 분채는 사용할 때 접시에 담은 안료를 일일이 아교와 개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준비에 소모되는 시간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운 제작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행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기법에 매료되고 말았다.

1) 석채石彩 : 원래 천연의 광물안료를 말하는데, 현대에 오면서 재료 구입 및 경제적 사정으로 인공적인 방법으로도 제작 사용되고 있다. 분채로 그린 다음 석채의 발색이나 질감 등의 효과를 그 위에 내기도 하고 석채로만 그리기도 한다.

2) 수간채색水干彩色은 한국화 기법 중 하나로 가루형태의 채색 안료로 스스로는 점성이 없기 때문에 풀 역할을 하는 아교를 함께 개어서 사용한다. 매우 연하게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을 겹쳐서 칠하는 작업이다.



그리움 – 장자에 수간채색(분채, 석채)

집을 나와 떠돌다보면 고향이 그립기 마련이다. 근본자리 즉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늘 염원하는 마음을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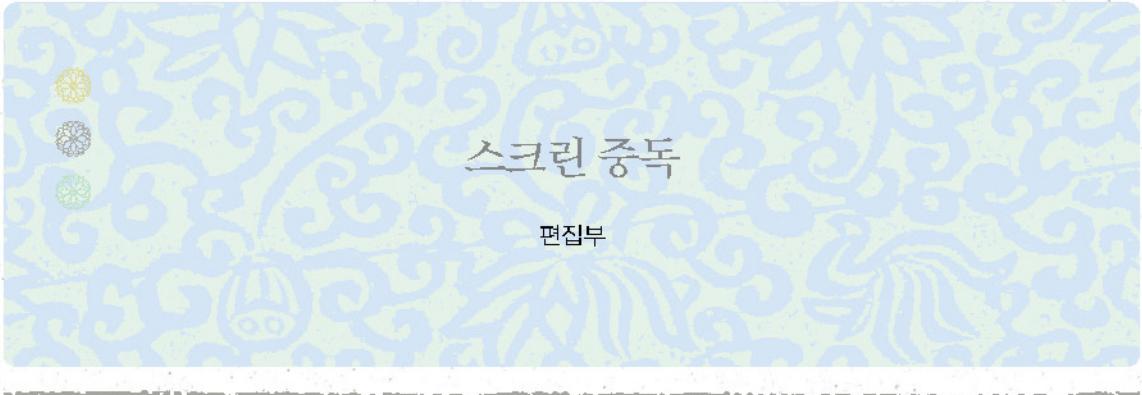
다. 하나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올리기를 반복하다보면 힘들고 지쳐 때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해온 작업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려나가곤 했다. 그러면 결국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작업의 성과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의 수행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가도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용기 내어 다시 나아간다. 어떠한 불평, 편법도 통하지 않는 그 길…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결국은 종착점은 있는 법… 앞으로도 나는 정신 차려 나의 마음을 살피는 기회를 잡고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저 묵묵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

분채는 다른 재료를 사용한 그림과 달리 올리면 올릴수록 탁해지지 않고 오히려 맑아진다. 그렇다고 마냥 묽게만 올리면 또 탁해지기 때문에 묽고 진하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다채로운 색을 먼저 올린 다음, 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결정된 색은 앞에 올린 색을 머금고 있기에 황색이라고 해도 같은 황색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흰색을 내는 호분胡粉³⁾을 사용할 때도 한국전통기법은 원색을 많이 올린 다음 호분을 써야만 먼저 올린 색들을 물고 오르면서 한층 더 뽀얀 호분색을 낼 수가 있다. 마치 우리의 마음과 습관들에 따라 각자의 삶이 다르게 드러나는 것과 같다. 마음상태에 따른 봇질, 아교의 농도, 주변 환경 등 수많은 원인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나타나기에 한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색을 올려도 똑같은 그림을 표현해낼 수가 없다.

더욱이 결정된 색을 제대로 발색發色시키기 위해서는 보색補色을 써서 기준의 색을 뒤엎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전환과도 같은 모습이

3) 호분胡粉 : 유공총有孔蟲, 조개류 따위로 만들어지는 흰색의 부드러운 가루. 백묵, 석회 원료, 안료, 도료로 널리 쓰인다.



스크린 중독

편집부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 2살부터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줄 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무언가 듣고 보고 손에서 놓지 못한다.

비단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영화, 게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본래를 들여다볼 수 없게 가로막는 모든 것이 스크린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이 괴로우면 도피하고 싶어진다.

먹는 것으로 잠으로 돈으로 명예로 사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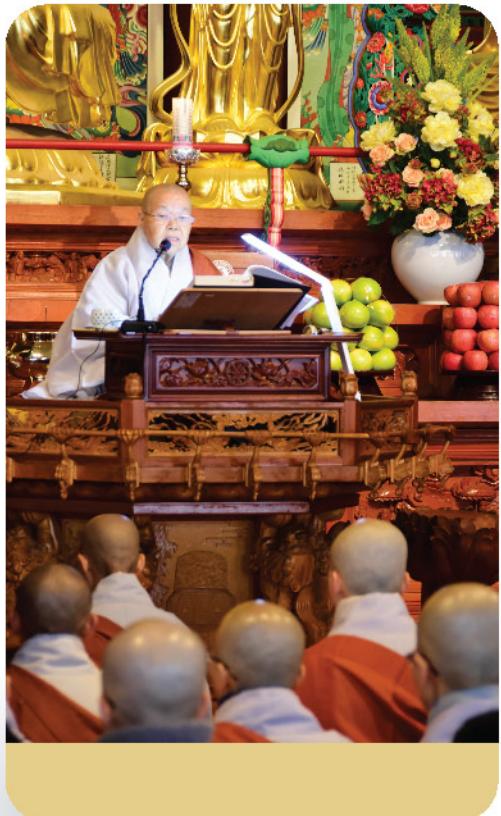
그리고 그것만이 즐거움인 양 되풀이한다.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당면한 문제에 불어불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새해엔 비겁하지 않게 중독에서 벗어나보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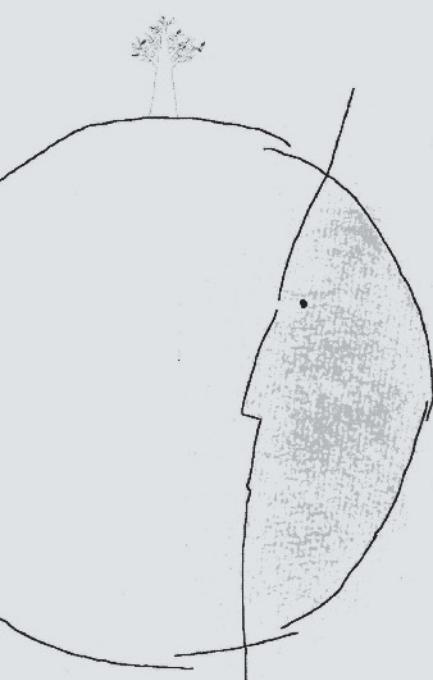
오백나한님과 함께했던
100일 수행 편집부





인생에서 돈과 쾌락보다 소중한 것들

명과 / 운문사승가대학원 1학년



통하면 전화로 언제 오냐고, 한번 좀 놀러 오라고 도반스님이 하도 성화를 대서 시간을 쪼개 얼굴이나 보려고 도반스님의 사찰에 방문했을 때였다. 근데 도반스님은 뭐가 그리도 바쁜지 왔다갔다 분주하더니, 초청해 놓고 안 들여다보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계속 편히 앉아 있으라 했다. 계속 앉아서 앉는데 또 뭘 그리도 편히 앉아 있으라 하는 건지….

바쁜 도반은 잠시 바쁘게 내버려 두고 방을 구경하다 한쪽 구석에 있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뽑아들었다. 요즘 나오는 책들처럼 화려한 곁표지도, 그럴듯한 미사여구도 달려 있지 않은 단출한 책이었다. 그 책의 제목은 「인생에서 돈과 쾌락보다 소중한 것들」.

이 책은 그렇다 할 불교와 관련이 있는 책도 아니고 교학자나 전문가가 쓴 책도 아니다. Daniel Johnson(다니엘 존슨)과 Sue Calwell(수 칼웰)이라는 두 친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번민과 고통 가운데 서로에게 충고와 조언을 하며 알게 되는 깨우침과 경험담들이 실려 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일들에서 느낀 점들을 하나하나 엮은 이 책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몇 가지 소개해 보면,

길을 가다 우연히 사고현장을 목격하게 된 이야기. 신출내기 구조대원들이 사고가 난 차량에서 시체를 꺼내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에 모두가 어쩔 줄 몰라서 긴장하고 있을 때였다. 아무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던 베테랑 구조대원이 말없이 수습을 하며 한마디를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를 갖추어 이 신사분을 돌봐드립시다.” 그 한마디에 어쩔 줄 몰라하던 구조대원들과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그 일을 되새기며 저자는 각박해지는 세상에 타인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타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질 때 상대로부터 최선의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힘들었던 위기와 고통의 순간을 되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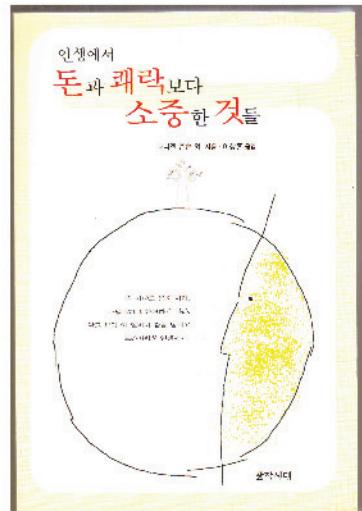
맡은 일을 잘해 승진을 하게 된 주인공, 포상금을 받아 오히려 사기를 당하게 된다. 보험이라는 직업상의 특징과 법에 관련된 사기라는 복잡 미묘한 상황, 대법원에서 6개월이 넘는 소송, 1주일 내내 쉬지 않고 고문처럼 이어지는 심문들, 이러한 치욕적인 상황은 자존심과 정신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의 암투병 소식까지… 하지만 저자는 자신이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며 최대한 자신이 그동안 노력해서 일궈놓은 능력들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변화를, 자신의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결코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죽쇄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위에서 말한 이야기들은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단지 일부분이다. 이러한 경험담들은 만약 내가 그러한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며,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과 사건들이다. 하지만 한장한장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너무도 당연시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진리를 소중하게 만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때론 진리와 내 양심의 소리보다는 돈과 권력과 명예, 쾌락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지금 내가 하려는 생각과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는 일들은 타당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현재를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지금 현재 스스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곧 스스로의 삶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비록 도반스님의 얼굴을 보러 간 장소였고, 뜻하지 않은 손끝의 선택으로 인해 이어진 인연의 책이었지만 마지막 책장을 넘기는 순간 두 사람의 인생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진리들을 만날 수 있음에 한없이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왜 사냐고 물지 마라,
고달프다고 한탄하지 마라,
알고 보면 이 얼마나 감동 넘치고
드라마틱한 인생인가” ☺



법담을 나누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주성 / 대교파

모든 시비분별을 떠나 기만히 있어
보기로, 모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묵
묵히 지켜보기를 청한다. 함께 모여
앉아서 고요하게 선정에 들어보자.
사마타, 위빠사나, 긴화선 그 밖에 어
떤 것이든 한 가지 공부 방법을 들어
서 치열하게 매달려보자. 거대한 침
묵 속에서 똑똑히 자기를 바라보며
모든 말과 생각이 끊어진 바로 그 자
리를 찾아보자. 때로는 첫잔을 마주
하고 그저 그 향기 속에 잔잔히 젖어
있어도 좋겠다. 오직 법담을 나누거
나,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거나 결정
은 우리들의 몫이다.

빨리어 무니(muni)는 침묵을 지키는 성자聖者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석가모니로 음사되는 샤카무니(Sākyamuni)는 ‘샤카족 출신의 침묵을 지키는 성자’로 해석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른 아님 침묵의 성자이시다. 45년 동안 팔만사천 법문을 설하였지만, 입적하실 즈음 단 한마디도 설법하신 적이 없다 하셨으니 부처님은 침묵의 성자가 분명하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함께 모이면 오직 두 가지 할 일이 있나니, 법담을 나누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맛지마 니까야』, 「성스러운 구함 경」, M26)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수행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 오직 법담을 나누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거나.

『디가 니까야』, 「뽀따빠다의 경」은 이와 같이 전한다. 한때 세존께서는 유행자 뽀따빠다를 찾아갔다. 뽀따빠다는 많은 유행자의 무리와 함께 앉아서 시끄럽게 왁자지껄 큰 소리로 떠들며 여러 가지 짐담(왕, 대신들, 음식, 음료, 의복, 여자……사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시시비비 거리에 대한 이야기)을 하고 있었다.

뽀따빠다는 세존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무리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조용히 하라. 바로 수행자 고따마가 온다. 이 존자는 고요함을 좋아하고, 고요함에 길들여져 있고, 고요함을 칭찬한다. 그는 우리가 고요한 대중인 것을 알면, 생각건대 우리와 가까이 할 것이다.” 세존께서는 뽀따빠다에게 함께 모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물으셨다. 뽀따빠다는 화제를 돌려 세존께 법을 설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 세존께서는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 올리듯’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다. 뽀따빠다와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찌마는 세존과 그 가르침, 승가에 귀의하였다. 찌마는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여 오래지 않아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함께 모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다행히 불법을 만나 삼보에 귀의하고 출가한 우리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법담을 나누고 있는가,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어지러운 잡담에 골몰하고 있는가. 이른바 ‘대중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모인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법담은 거의 없고, 대개 잡담이 있다. 경전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고귀한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팔만사천 가지 잡담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십상이다. 특히 강원이라는 특성상 대중의 규율을 위시한 온갖 시시비비가 난무한다. 법과 경전에 의지하여 문제를 ‘법답계’ 풀어가기보다는, 이어져 내려오는 대중의 원칙과 질서를 앞세울 때가 많다. 그 오래된 원칙이라는 것이 때로는 매우 변덕스럽다. 법립과 권위를 기반으로 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얹힌,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시비분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강원생활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입으로 벌여놓은 업業의 무더기들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탁발에서 돌아와 잡담을 나누고 있던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런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양가의 자제로서 믿음을 가지고 집을 나와 출가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다.” (남전 小部經典 自說經(3·9) 技藝)

그 옛날 다섯 비구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오래지 않아 깨달음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중도, 사성제, 팔정도의 초전법륜을 들은 후 곧바로 수다원과를 얻었고, 무상·무아의 법문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법을 듣기 전부터 이미 치열하게 수행을 해오던 수행자들이었다.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을 거대한 침묵 속에서 보냈을 것이다. 깨달음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인 ‘자기’라는 존재를 똑똑히 응시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을 것이다. 그 무엇으로도 도피하지 않고, ‘자기’와의 지난한 싸움을 고요하게 헤쳐 나갔을 것이다. 성스러운 침묵으로 단련되었기에, 시절인연이 도래한 순간 부처님의 설법이 ‘침묵의 천둥소리’가 되어 그들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미혹의 그물이 벗겨져 마침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전을 읽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 법담을 나누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쌓은 지혜를 기반으로 하여 자기생활은 물론 대중생활의 제반사항들을 법에 비추어 풀어내고 올곧게 실천하는 현실을 이끌어야 한다. 나머지 시간에는 가능한 한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기를 권한다. 모든 시비분별(나를 향한 것인든, 남을 겨냥한 것인든)을 떠나 가만히 있어 보기, 모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묵묵히 지켜보기를 청한다. 함께 모여 앉아서 고요하게 선정에 들어보자. 사마타, 위빠사나, 간화선 그 밖에 어떤 것인든 한 가지 공부 방법을 들어서 치열하게 매달려보자. 거대한 침묵 속에서 똑똑히 자기를 바라보며 모든 말과 생각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를 찾아보자. 때로는 찻잔을 마주하고 그저 그 향기 속에 찬찬히 젖어 있어도 좋겠다. 오직 법담을 나누거나,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거나 결정은 우리들의 몫이다. ☩

운문소식



▲ 동안거 결제 제사



▲ 냉이캐기 대중운력



▲ 오백전 100기도 외향



▲ 웃놀이



▲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제4회,
승가대학 제52회 졸업식

- 11월 26일 겨울철 개학봉사 및 동안거 결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 11월 27일 금강정진회 불자님들의 1박 2일 철야정진이 있었습니다.
- 12월 2일 염불을 시작으로 요가와 서예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12월 5일 냉이캐기 대중운력이 있었습니다.
- 12월 11일 일진 화장스님을 법사로 겨울철 결계포살이 대웅보전에서 봉행 되었고,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8일 故 흥륜 화장스님의 생신제사가 배내골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20일 오백전 100일기도 회향이 오백전에서 있었고, 명성 회주스님께서 대웅보전에서 회향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 12월 21~24일 동지행사로 3박 4일간 임시휴강 하였습니다.
- 12월 26일 대학원 스님들을 위한 김종철 교수님 한문특강이 있었습니다.
- 12월 27일 대자원 졸업법회가 화엄반 은사스님들과 경주월드눈썰매장에서 열렸습니다.
- 12월 29일 화엄반 스님과 어른스님들께서 동참하신 무료급식 봉사활동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30일 겨울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주스님 이하 온 대중스님들의 윷놀이가 청풍료에서 있었고, 새해맞이 철야정진이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일 향수해례와 사성례로 예불 올리고, 통일 세배로 새해 새아침을 시작하였습니다.
- 1월 2일 겨울철 중간 죽비교체가 있었습니다.
- 1월 3~9일 마하보디 교육원에서 화엄반 스님들의 호스피스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1월 8일 화장스님 이하 어른스님들께서 화랑연구소 정기답사로 일연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비슬산 대경사와 선암산 압곡사에 다녀오셨습니다.
- 1월 10~12일 사집반 스님들의 자비참기도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7일 성도재일을 맞아 대중스님들의 철야정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 1월 19일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제4회, 승가대학 제52회 졸업식이 대웅보전에서 거행됩니다.
- 2월 1일 ~3월 9일 38일간의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 중(3월 3일~7일) 사교, 사집반 스님들의 대만불교 연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화주신 분

• 송운 스님 • 이영철 • 이기태 • 정해옥 • 노기용 • 이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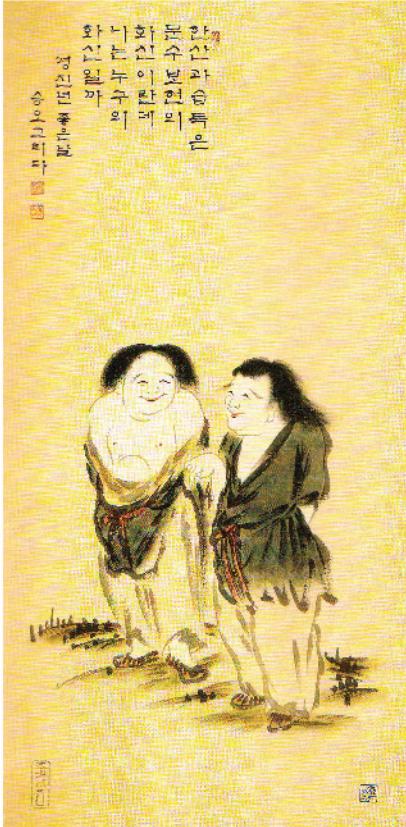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나를
바라보는
시간



원각 스님 作

도를 배우려는 자가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점검하는 데 쏟던 공력을 스스로를 점검하는 데에
쓴다면 이루지 못할 도업道業이 없을 것이다.
기쁨과 성냄과 고요함과 시끄러움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부거리일 뿐이다.

- 대혜大慧 선사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자 격	2016년 봄 수계자까지(행자교육 50기까지)
모집인원	사미니과 ○○명
시험과목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
준 비 물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지자는 제외)
모집기간	2015년 12월부터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도착일시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시험일시	2016년 1월 29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명성 · 학장 일진 · 주지 진광

모집대상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6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모집인원	○명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대학원 · 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증명사진 2매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윤주 명성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문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거울호·통권 제135호·2016년 1월 15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일진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현공 / 편집위원·현공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현공(여여) / 삽화·무진 /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